DBpia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5, Vol. 17, No. 3, 599-616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최 해 림†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공격성 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부·모 애착, (부정적인)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경로 모델을 설정하고 이 심리적 변인들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 공격성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로분석에서는 부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에 각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적 사고는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동적 사고가 매개 역할을 하고 부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매개 역할을 하지만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정체감 사이는 무관하여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이 공격성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경로분석결과 변인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효과로서 자동적 사고가 가장 컸으며(β=.54), 다음으로 남성성(β=.31), 부 애착(β=-.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년, 부모애착, 성역할정체감, 자동적 사고, 공격성

---

* 이 연구는 2004년도 서강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최 해 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교양학부
E-mail : hrchoi@mail.sogang.ac.kr

www.dbpia.co.kr

최근에 들어 충격 사건, 학교 내의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며 공격성이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로 수행된 행동" (민경환, 2002)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 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Gerrig와 Zimbardo(2002)는 생물학,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본주의, 인지주의, 진화론, 문화론의 7개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공격성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고 있다. 대표적인 설명은 정신역동에 근거한 좌절-공격성 가설과 학습이론과 인지이론에 근거한 사회인지이론과 인지행동이론이다. 좌절-공격 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방해를 받거나, 제지를 당하면 좌절을 경험하고 이 좌절이 공격성을 일으킨다고 한다(Berkowitz, 1993).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고, 기억, 해석과 같은 사회적 인지적 변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정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공격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Dodge, 1982). 공격적인 사람은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왜곡해서 귀인하고 단서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한다. 공격성에 대한 인지행동접근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이 단순하게 외부의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상황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특성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된다는 것이다(박형원, 2002). Mischel(1993)은 공격적인 사람들이 인지 사회적 개인변인들 즉 개인적 구성개념과 부호와 방략, 목표, 기대, 능력, 자기조절 체계 등에서 덜 공격적인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Kendall(1993)은 공격적인 아동의 인지적인 특성에 대해 인지적 왜곡과 인지적 결핍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인지적 왜곡은 역기능적 사고과정을 말하며, 인지적 결핍은 행동에 앞서 더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지적 활동이 불충분한 것이다.

좌절의 근거를 부모와의 애착에서 살펴 볼 수 있다(박정녀, 최해림, 2005). 공격성을 포함하여 여러 행동문제의 발달이 부모와의 애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어 왔다(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장휘숙(2003)은 아동의 근접추구 행동으로 표현되는 아동의 애착욕구가 거부당하면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지적하였다.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관계형성이 실패할 것이라는 공포는 충족되지 못한 애착욕구로 인해 오히려 애착욕구를 강하게 활성화시키고, 심지어 애착을 위한 전쟁으로까지 확대시킨다. 양육자가 아동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일 때 아동의 욕구는 충족되고, 아동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믿게 되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획득에 성공하게 된다(Weinfield, Sroufe, Egeland, & Carlson, 1999). 반면 양육자가 아동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 아동은 축적된 좌절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갖는다(Weinfield et al., 1999). 그러므로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이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감하지 않고 비순응적인 양육으로 인해 아동이 부적응적인 감정 조절과 의사소통 패턴을 갖기 때문이다. Turner(1991)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아동에 비해 불안정 애착 아동은 공격적, 파괴적 독단적, 통제적 행동을

www.dbpia.co.kr

많이 보였고 공격적 행동을 포함한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Kobak(1999)은 애착과 관련된 분노는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접하게 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영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를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s)라고 한다(Beck, 1976). Beck과 Emery(1985)에 따르면, 자동적 사고의 과정은 개인의 과거 경험들이 추상화되어 축적된 인지적 구조, 즉 인지 도식(cognitive schema)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인지도식이 개인의 긍정적인 과거 경험으로 축적된 경우에는 개인이 심리적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을 경우 심리적 문제에 매우 취약하게 되기 쉽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인지도식 즉 역기능적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런 역기능적 신념을 토대로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협 정도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 능력 혹은 대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영상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이다(권정혜, 1993). 다시 말하면 매일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통하여 개인의 역기능적 신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동적 사고는 애착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Bowlby(1982)는 각 개인이 애착대상과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자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 그래서. 내적 작동모델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바뀌어 애착체계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며,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양육자와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라면서 계속 발전되어 새롭고 낯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탄탄한 근간이 된다(Ainsworth, 1989; Bowlby, 1982).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이후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한다(Styron & Janoff-Bulman, 1997). 애착의 인지적, 행동적 요소는 과학습(overlearned)되어 인지적 체계 내에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기존의 작동모델에 부합되지 않는 정보를 배제시킨다(Bowlby, 1980).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역기능적 인지와 낮은 자기존중감을 보이면서 우울해진다(Roberts, Gotlib, & Kassel, 1996). 또한 긍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중성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Beck, 1976).

부모애착, 부정적 자동사고 외에도 남녀 성차, 성역할 정체감, 연령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공격성과의 관계도 관심사이다. 지난 30여 년간 성역할에 대한 의식이 새로운 수준으로 확장되었지만 성 차이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강력하다(Berk, 2003). 공격성에서 성 차이를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외현적 공격성에서 더 높은 반면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다. 여자아동들의 관계적 공격성이란 소문을 퍼트리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이간질 등을 함으로써 관계를 깨는 경우를 말한다(Crick & Grotpeter,

www.dbpia.co.kr

1995). 남자아동이 외현적 공격성, 여자아동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때 보통 친구와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나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는 여자아동이나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남자아동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은 좀 더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Crick, 1997). 공격성에 대한 환경적 영향은 강력하여 강압적인 부모양육, 긴장감 도는 가정 분위기, 체벌의 사용, 공격적 행동의 허용 등과 관계가 있다.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 보다 부모의 싸움에 더 적대적인 반응을 한다(Berk, 2003). 청소년의 적대적 공격과 보복적 공격은 청소년 초기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감소는 청소년의 공격행동이 줄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김정이, 2003).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적개심을 감추고 경쟁자를 다루는 수단으로 집단 따돌림으로 대처하고, 남학생들은 그들의 분노나 좌절을 무단결석, 절도, 술, 약물남용, 성적비행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Bjorkqvist, Lagerspetz, & Kaukianen, 1992, 김정이, 2003 재인용).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문화의 변화와 함께 성(gender)보다 성역할(gender role)이 분노와 분노의 표현과 더 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 Kopper와 Epperson (1996)은 남성성이 분노와 공격성의 표현과 상관이 높고 여성성이 분노의 억압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남자가 여자보다 분노를 신체적으로 더 표현하기는 하지만 남자와 공격성을 자동적으로 연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남성 호르몬이 남성에게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지만 이 영향은 간접적이다. 다시 말하면 활동 수준, 정서적 반응 또는 주도성 등에 영향 줌으로써 특정 조건 아래에서 공격성을 증가 시킨다.

선행연구(박정녀, 최해림, 2005)에서 부·모 애착이 낮을수록 (부정적인)자동적 사고가 높고, 공격성이 높으며 자동적 사고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 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동적 사고가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 결과에서 부정적 사고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검증되었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부터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 외에 공격성에 영향 주는 또 다른 매개변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역할정체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청년기의 초기, 중기, 후기를 대표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1. 부모 애착, (부정적)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 공격성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2. 부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자동적 사고가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며 성역할 정체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경로 모델을 검증하고
3.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발견함으로써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조절함으로써 공격성 통제에 필요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www.dbpia.co.kr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서울 시내 중학교 2학년 59명, 3학년 70명, 고등학교 1학년 45명, 2학년 50명, 대학교 1학년 38명, 2학년 31명, 3학년 32명, 4학년 22명을 포함하여 총 347명(남자175명, 여자 172명)이다.

도구

부모 애착 척도

Greenberg, Siegel과 Leitch(1983)가 개발하고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정한 부모, 또래 애착 척도 개정판(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부, 모 애착 각각 2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를 각 문항별로 표시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뜻한다. 박정녀와 최해림(2005)연구에서 부 애착 신뢰도 계수는. 93, 모 애착 신뢰도 계수는 .93 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얻은 부 애착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4이며, 모 애착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2이다.

성역할 정체성 척도

김혜래(2003)가 Bem Sex Role Inventory(BSRI, Bem, 1974)와 BSRI를 한국형으로 만든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정진경, 1990)를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로 남성성 18 문항, 여성성 18 문항, 중립문항 14문항으로 총 5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7점까지 7점 척도에 답하게 되어 있다. 응답 처리는 남성성 점수, 여성성 점수, 긍정성 점수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남성성 점수는 18개의 남성성 문항에 대한 평균이고 여성성 점수는 18개의 여성성 문항에 대한 평균이다. 이 두 점수는 논리적으로 상호 독립적이며 계산 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긍정적 점수는 14개의 긍정 문항에 대한 것으로 성과 무관한 문항이므로 산출되지 않는다. 양성성 점수는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곱에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차의 절대값을 빼는($M \times F - |M - F|$)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 방법은 Kwan(2000)이 고안한 것으로 양성성의 조합과 균형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발전시킨 계산법이다(김혜래, 2003 재인용).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곱에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차이의 절대값을 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점수가 각 개인의 양성성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해 본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6이며, 남성성 .87, 여성성 .78 이다.

한국판 아동기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동적 사고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Schniering과 Rapee(2001, 문경주, 오경자와 문혜신 재인용)가 개발한 아동기 자동적 사고 척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s: CATS)를 문경주 등(2002)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실패나 좌절, 무망감과 관련된 개인적 실패를 측정하는 우울 인지,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지각과 그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측정하는 적대적인지, 사회적 상황에서

www.dbpia.co.kr

자신이 타인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비웃음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사회불안 인지, 자신 또는 주변사람들의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인지적 내용을 측정하는 신체적 위협 인지의 4개영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연구대상자들이 32개의 각 문항내용에 대해 지난 1주일동안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를 응답하는 것으로 "전혀 한 적이 없다"(1점)에서 "아주 자주 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매겨진다. 그리고 점수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을 개인별 자동적 사고 척도의 점수로 삼았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여긴다. 문경주 등(2002)의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가 .94였으며, 박정녀와 최해림(2005)의 연구와 본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전체 신뢰도 계수도 *Cronbach's α* .94이었다.

공격성 척도

Buss와 Perry (1992)가 제작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근거로 서수균. 권석만(2002)이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를 하였는데 총 29 문항 중 27항 문항을 사용 할 것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공격성 질문지를 다시 번안하여 2명의 상담심리사가 한국어 표현을 수정하여 재타당화 과정을 시도한 결과 그대로 29 문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검사는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 적개심의 4개의 하위 영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성으로 행동의 도구적 또는 운동적 요소를 말한다.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말하며 행동의 정서적 요소를 나타낸다. 적대감은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인지적 요소를 반영한다. 서수균, 권석만(2002)의 연구와 본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6이다.

절차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 공격성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고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 ->공격성의 경로모델을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결 과

부·모 애착, (부정적)자동적 사고, 성 역할 정체감, 공격성의 상관(표 1)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는 각각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모 애착이 잘 되어 있을수록 자동적 사고에서 우울 인지, 적대적 인지, 사회불안 인지, 그리고 신체적 위협 인지가 낮음을 의미한다. 부·모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관도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부·모 애착이 잘 되어 있을수록 성역할 정체성에서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양성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과 공격성의 상관은 언어적 공격성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 걸쳐 유의미한 부적 상

www.dbpia.co.kr

표 1. 부모 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성, 공격성의 상관관계

	부 애착	모 애착	자동적사고					성역할정체성			공격성			
			우울	적대적	사회불안	신체위협	전체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신체적	언어적	분노	적대감
모 애착	.34***													
우 울	-.27***	-.28***												
적대적	-.10△$_1$	-.14**	.38***											
사회불안	-.20***	-.24***	.65***	.37***										
신체적위협	-.16**	-.12*	.49***	.35***	.54***									
전 체	-.23***	-.25***	.81***	.69***	.82***	.76***								
남성성	.15**	.17**	-.17**	.10△$_2$	-.17**	-.06	-.09							
여성성	.13*	.29***	-.09	-.04	-.06	-.04	-.08	.35***						
양성성	.18**	.26***	-.16**	.03	-.15**	-.06	-.11*	.85***	.76***					
신체적	-.16**	-.24***	.29***	.50***	.22***	.26***	.42***	.18**	-.11*	.05				
언어적	-.02	-.02	.05	.28***	.05	.05	.14**	.26***	.07	.20***	.31***			
분 노	-.24***	-.19***	.47***	.34***	.39***	.28***	.48***	-.02	-.03	-.05	.50***	.36***		
적대감	-.25***	-.22***	.59***	.36***	.55***	.42***	.62***	-.12*	.03	-.07	.39***	.21***	.57***	
전 체	-.23***	-.23***	.48***	.50***	.42***	.35***	.57***	.10	-.02	.04	.75***	.62***	.84***	.74***

*p<.05, **p<.01, ***p<.001, .054 .073

www.dbpia.co.kr

관을 보이고 있다. 즉 부·모 애착이 잘 되어 있을수록 신체적 공격성, 분노, 그리고 적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의 상관을 살펴보면, 남성성과 우울인지, 사회불안인지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남성성이 높을수록 우울인지나 사회불안인지의 자동적사고가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여성성은 자동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성성은 남성성과 마찬가지로 우울인지와 사회불안인지에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양성성이 높을수록 우울인지나 사회불안인지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자동적사고와 양성성 간에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성이 높을수록 자동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은 하위척도간의 상관을 보았을 때, 언어적 공격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자동적 사고가 많을수록 공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어적 공격성에서 자동적 사고의 적대적 인지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대적 인지의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은 $r=.57(p<.001)$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성역할 정체성과 공격성의 상관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신체적 공격성은 남성성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r=.18,\ p<.01$), 여성성과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r=-.11,\ p<.05$). 즉 남성성이 높을수록 신체적 공격성이 높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신체적 공격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언어적 공격성을 살펴보면, 남성성과 양성성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성성과 양성성이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분노는 성역할 정체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적대감을 살펴보면, 남성성과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r=-.12,\ p<.05$). 즉 남성성이 높을수록 적대감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과 공격성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1) 부 애 착과 모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2)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가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며, 3) 부·모 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경로모델을 만들었다. 이러한 경로모델에 의해 네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두 세 번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부·모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가 성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며, 끝으로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각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 모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외부변인은 부 애착과 모 애착이며, 내부변인은 자동적 사고이다. 부 애착, 모애착과 자

www.dbpia.co.kr

표 2. 부·모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n=347)

	B	β	R^2	$Adjust\ R^2$	$\sqrt{1-R2}$	F
부 애착	-.026	-.167**	.089	.084	.332	14.77***
모 애착	-.037	-.198***				

**p<.01, ***p<.001

동적 사고간의 설명변량인 R^2 값은 .08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4.77, p<.001). 즉 이들 변인간의 인과관계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분석에서의 설명변량은 오차변량(설명할 수 없는 변량)을 제곱근(√)한 값인 오차 상관관계계수($\sqrt{1-R2}$; 경로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변인 전체와 내부변인과의 상관관계계수)로서 나타내어지는데, 그 값은 .332로서 내부변인인 자동적 사고 위에 굵은 직선 화살표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1>. 한편,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는 변인간의 통로에 베타계수를 제시하는데, 부 애착의 베타계수는 -.167(p<.01)이며, 모애착의 베타계수는 -.198(p<.001)로서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 애착이 부 애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부, 모애착과 자동적사고가 성역할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부, 모애착과 자동적사고, 그리고 남성성의 인과관계는 R^2=.038(F=4.52, p<.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오차 상관관계계수는 .981이다.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모 애착이 남성성에 유의미한 영향력(β=.12, p<.05)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부, 모

표 3. 부·모애착과 자동적사고가 성역할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B	β	R^2	$Adjust\ R^2$	$\sqrt{1-R2}$	F
남성성	부애착	.005	.097	.038	.030	.981	4.52**
	모애착	.007	.122*				
	자동적사고	-.012	-.039				
여성성	부애착	.002	.037	.083	.075	.958	10.33***
	모애착	.014	.274***				
	자동적사고	.001	.003				
양성성	부애착	.032	.098	.080	.072	.959	9.90***
	모애착	.088	.224***				
	자동적사고	-.057	-.027				

*p<.05, **p<.01, ***p<.001

www.dbpia.co.kr

애착과 자동적사고, 그리고 여성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성과 마찬가지로 모 애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β=.27, p<.001)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성성에도 모 애착이 유의미한 영향력(β=.22, p<.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모애착과 자동적 사고가 성역할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 애착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부 애착이나 자동적 사고는 성역할정체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미치고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가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는 성립하지 않았고 부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애착이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보였다.

부·모 애착, 자동적사고, 성역할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 모애착과 자동적사고, 성역할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적 사고가 가장 크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β=.54, p<.001), 다음은 남성성(β=.31, p<.05), 부애착(β=-.10, p<.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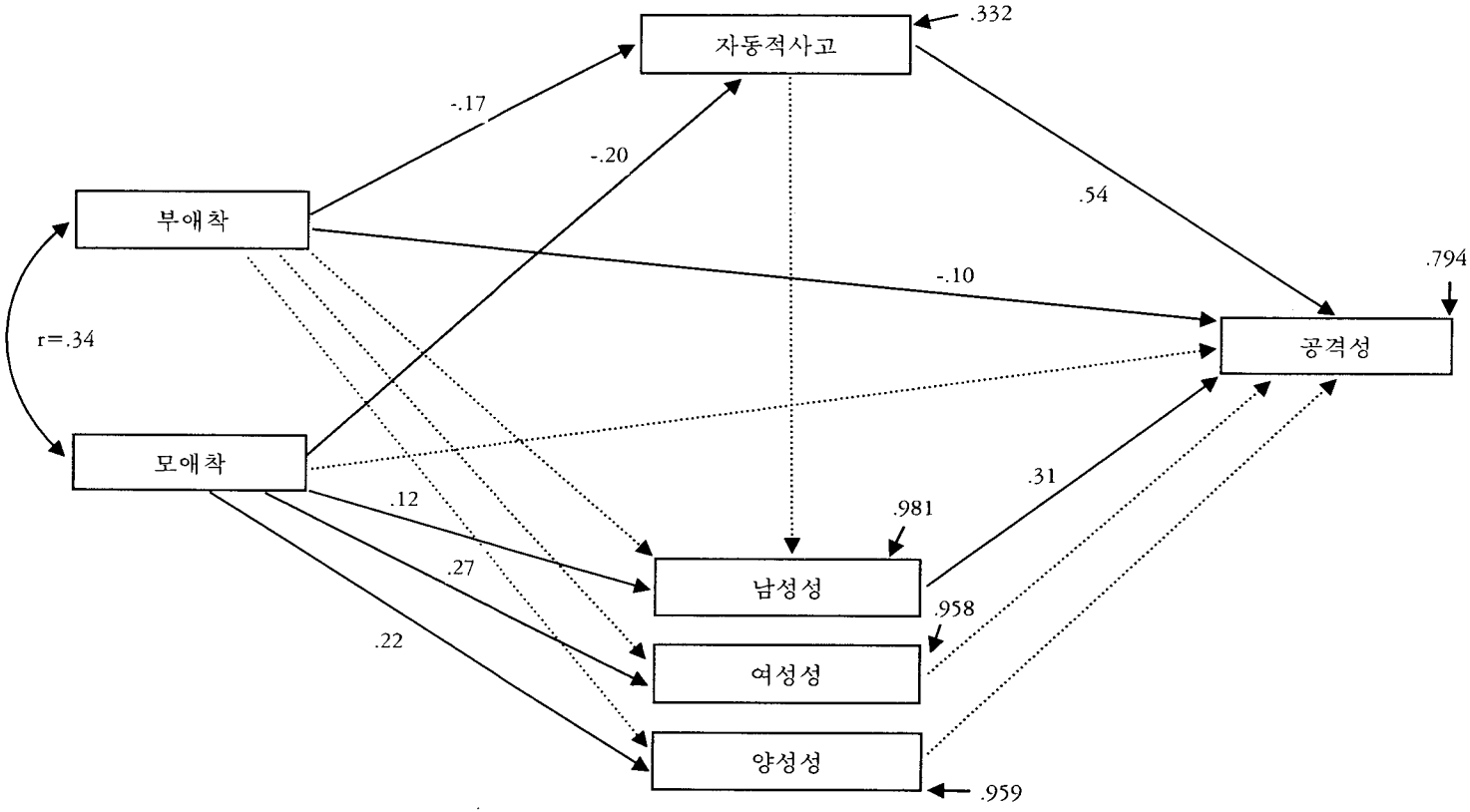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부 애착(β=-.17)과 모 애착(β=-.20)은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 애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에서는 자동적사고와 부 애착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모 애착이 여성성(β=.27), 양성성(β=.22), 남성성(β=.12)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 자동적사고, 성역할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효과로서 자동적 사고가 가장 컸으며(β=.54), 다음으로 남성성(β=.31), 부 애착(β=-.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하고 부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매개 역할을 하지만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정체감 사이는 무관하여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이 공격성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동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성역할 정체감도 의미있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부·모애착과 자동적사고와 성역할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B	β	R^2	$Adjust\ R^2$	$\sqrt{1-R2}$	F
부 애착	-.011	-.095*	.369	.358	.794	33.12***
모 애착	-.013	-.089△				
자동적사고	.410	.539***				
남성성	.741	.308*				
여성성	.263	.095				
양성성	-.070	-.195				

*p<.05, ***p<.001, △=.066

www.dbpia.co.kr



〔그림 1〕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로분석

1) 실선 화살표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며, 실선 위에 표시된 숫자는 영향력의 크기(베타값)를 나타낸다.
2) 점선 화살표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변인간의 인과관계가 없다.
3) 양방향 화살표가 있는 포물선은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4) 내부변인 위 또는 옆에 굵은 직선 화살표로 제시된 값은 오차 상관관계계수($\sqrt{1-R2}$)이다.

www.dbpia.co.kr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에 대한 여러 변인이 갖는 관계를 살펴보면, 부 애착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효과(β=-.10)를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자동적 사고를 통한 간접적 효과(-.17×.54=-.09)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 애착이 공격성에 대해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값인 -.19이다. 또한 모 애착은 공격성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으나 자동적 사고를 통한 간접효과(-.20×.54=-.11)와 남성성을 통한 간접효과(.12×.31=.04)가 있어 전체 영향력의 크기는 -.07이다. 다음으로, 자동적 사고는 공격성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β=.54)만 있으며, 남성성도 마찬가지로 공격성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β=.31)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뿐만 아니라 성역할 정체감이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부모애착은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에 각각 영향력이 있으며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은 부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동시에 의미 있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성역할 정체감을 매개 변인으로 포함 할 때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와 함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커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격성 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부·모 애착, (부정적인)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부모 애착, (부정적)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 공격성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둘째, 부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자동적 사고가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며 성역할 정체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경로 모델을 검증 하고, 셋째,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녀, 최해림(2005)의

표 5.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효과계수

	부애착	모애착	자동적사고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자동적사고	-.17	-.20				
남성성		.12				
여성성		.27				
양성성		.22				
공격성	**-.19**	**-.07**	**.54**	**.31**		

*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계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값으로서 나타낸다. 직접효과는 외부변인이 내부변인에게, 또 한 내부변인이 다른 내부변인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으로, 두 변인간의 경로계수로서 나타낸다. 반면에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의 경로계수를 곱한 것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것이 변인의 전체 영향력이다.

www.dbpia.co.kr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부모애착 척도를 재타당화 하여 사용하였고 공격성 척도는 같은 Buss와 Perry(1992)의 최근 판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연구대상도 중,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까지 포함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부정적인)자동적 사고가 낮고, 공격성이 낮으며 자동적 사고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재확인 되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전체 자동적 사고나 공격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아 박정녀, 최해림(2005)의 연구 결과와 달랐다. 이는 도구의 변경, 연구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적 사고에서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적대적 인지, 여학생은 우울인지가 의미 있게 높았고 공격성에서도 남학생이 신체적 공격성에서만 의미 있게 높았고 여학생은 분노와 적대감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 남학생은 남향성이, 여학생은 여성성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자동적 사고, 공격성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반면 자동적 사고에서 남성성과 양성성이 우울인지와 사회불안 인지와 의미 있는 부적 관계가 있으며 여성성은 자동적 사고인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정적 관계를, 적대감 공격성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고 양성성은 언어적 공격성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여성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남녀 성별차이, 성역할 정체감, 자동적 사고로 공격성의 설명이 분명하지 않아 부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자동적 사고가 성역할정체감에 영향 미치며, 역할정체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분석을 하여보았다<그림 1>. 결과를 살펴보면, 부 애착(β=-.17)과 모 애착(β=-.20)은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모 애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에는 자동적 사고와 부 애착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모 애착이 여성성(β=.27), 양성성(β=.22), 남성성(β=.12)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효과로서 자동적 사고가 가장 컸으며(β=.54), 다음으로 남성성(β=.31), 부 애착(β=-.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은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에 각각 영향력이 있으며 부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은 동시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정체감 사이는 무관하여 자동적 사고와 성역할 정체감이 공격성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에 대한 여러 변인이 갖는 관계를 살펴보면, 부 애착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효과(β=-.10)를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자동적 사고를 통한 간접적 효과(-.17×.54=-.09)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부 애착이 공격성에 대해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값인 -.19이다. 또한 모 애착은 공격성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으나 자동적 사고를 통한 간접효과(-.20×.54=-.11)와 남성성을 통한 간접효과(.12×.31=.04)가 있어 전체 영향력의 크기는 -.07이다. 자동적 사고는 공격성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β=.54)만 있으며, 남성성도 마찬가지로 공격성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β=.31)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부모애착, 자동적사고와 함께 성역할 정체감을 포함함으로써 심리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커졌음을 말해 준다.

www.dbpia.co.kr

본 연구 결과 공격행동 당시에 진행되는 자동적 사고가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공격행동을 하는 사람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 특히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와 함께 성역할정체감 형성도 또한 살펴 보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여자 아동과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이 과거의 여성성을 탈피하여 남성성, 양성성의 특징을 더 갖게 됨으로써 여학생들의 공격성이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심리적 변인들이 공격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부모 애착과 함께,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이 어떤 구체적인 부정적 사고와 어떤 구체적인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가 보아야 하며 성차와 연령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살펴보아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elson(2004)은 최근 연구에서 호르몬, 스트레스, 공격성은 서로 악순환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신체 생리적 요소들과 함께 환경적/상황적 요인들도 또한 함께 연구되어야 공격성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의 표집이 단일 중학교, 단일 고등학교, 단일 대학이었으며 아버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96.3%(이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이 63.7%)이고 어머니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94.8%(이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이 44,1%)가 되었다. 이는 일반 인구를 대표하지 못하며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강진경 (2000).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곽금주 (1998). 사회인지 발달적 관점에서 공격성의 평가와 중재에 대한 탐색. 심리과학, 6(2), 1-18.

곽금주, 윤진 (1992). 공격성의 사회인지적 매개과정에 의한 두 가지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10

권정혜 (1993).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한국심리학회 동계연수회 자료집.

권혁희 (2002). 우울에 있어서의 부정적, 긍정적 자동적 사고와 인지균형과의 관계. 상담학 연구, 3(2), 305-321.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김재희, 주은선 (2001).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07-125.

김정이 (2003).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비합리적 신념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래 (20003).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성역할정체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 박사학위 논문.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법문사

박형원 (2002). 공격적인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 접근의 교육적 활용. 연세교육연구, 15(1), 37-54.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www.dbpia.co.kr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옥 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청소년의 애착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 신경정신의학, 41(2), 274-282.

이정윤 (1996). 사회불안과 우울의 인지특성: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태도, 핵심신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99-211.

장휘숙 역 (2003).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시그마프레스

장휘숙 (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지: 인간발달연구, 4(1), 88-106.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9-92, 487-501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7-36.

Adelson,. R. (2004). Hormones, stress and aggression-a vicious cycle. *Monitor, 35(10)*, 18-19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Allen, J. P., Bell, K. L., Moore, C., & Kupermine, G. P.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Bem, S.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erk, L. E. (2003). *Child Development*(6th ed.), Boston: Allyn & Bacon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Bjorkqvist, K. (1994).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s, 30,* 177-188

Bjorkqvist, K., Lagerspetz, K. N. J., & Kaukia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2.*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 depression, 3.*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www.dbpia.co.kr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Brannon, L. (2005). *Gender: psychological perspectives.* 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In K. Corcoran & J. Fischer (Eds.),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Vol 2* (3rd ed.) (pp.43-45). New York: The Free Press.

Carlo, G., Raffaelli, M., Laible, D. J., & Meyer, K. A. (1999). Why are girls less physically aggressive than boys? Personality and parenting mediators of physical aggression. *Sex Roles, 40(9/10),* 711-729.

Connor, D. F., Steingard, R. J., Anderson, J. J., & Melloni, R. H. (2003). Gender difference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3(4),* 279-294.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Dodge, K. A. (1982).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Dozier, M., Stovall K. C., & Albus, K. (1999).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In J. Cassidy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 497-519). New York: Guilford Press.

Engels, R. C. M. E., Finkenaucer, C., Meeus, W., & Dekovicaute, M. (2001).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s emotional adjustment the associations with social skill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28-439.

Gerri, R., & Zimbardo, P. (2002). *Psychology and life.* New York: Allyn & Bacon.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408.

Kendall, P. C. (1993).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with youth: guiding theory, current status, and emerging development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1,* 235-247.

Kobak, R. (1999). *The Emotional dynamics of disruption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 21-43). New York: Guilford Press.

Kopper, B. A., & Epperson, D. L. (1996).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58-165

Kwan, C. (2000). *Gender, identity and suicidality: A study of adolescents in Macau.*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ischel. W. (1993). *Introduction to Personality.* Orlando: Harcourt Brace Jovannoci College Publishers.

www.dbpia.co.kr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Sear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47-158.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Turner P. J. (1991).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Weinfield, N. S.,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A. (1999). The nature of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 caregiver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 68-88).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 Inc.

원 고 접 수 일 : 2005. 5.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5. 8. 1
게 재 결 정 일 : 2005. 8. 5

www.dbpia.c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5, Vol. 17, No. 3, 599-616

Parental Attachment, Automatic Thoughts, Gender Role Identity as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Aggression

Choi Hae Rim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attachment, automatic thoughts and gender identity as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aggression in a sample of 347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172 females and 175 males). Parental attachment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automatic thoughts and aggression while automatic thoughts correlated positively with aggression. The results revealed no gender difference both in automatic thoughts and aggression. However gender role identity was correlated with parental attachment positively and masculine and androgynous identity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cognition and depression cognition negatively while faminine identity had no correlation with automatic thoughts. In aggression masculine identity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physical aggression and verbal aggression while feminine identi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physical aggression and androgynous identity with positive correlation with verbal aggression. Gender role identity and anger did not have any signigicant correlation. Only masculine identi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hostility. Automatic thoughts were proved to be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ggression as gender role identity was. Path analysis provided automatic thoughts(β=.54), masculine role identity(β =.31), attachment to father(β=-.10) had direct mediating effects on aggression. Thus in study of aggression gender role identity i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as automatic thoughts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ggression.

Key Words : adolescent, attachment, automatic thoughts, sexual identity, aggression

www.dbpia.co.kr